

악천후에 멈춰버린 수색...애절한 기다림만 계속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 발생 26일째인 11일 기상 악화로 수중과 해상, 상공에서 진행했던 수색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사고 해역과 도서지방 해안, 상공에서의 희생자를 찾는 수색상황은 모두 멈춰버렸지만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애절한 기다림은 더욱 간절해지고 있다.

◇멈춰버린 수색작업=침몰 사건이 발생한 진도 해역에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팽목항의보에 잠수사 전원 철수·바지선 1척도 피항 팽목항 가족들 야속한 하늘만 보며 온종일 눈물 가득

팽목항의보가 발령됐다. 사고 해역은 이날 오후 현재 조속 최대 18m의 거센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2~3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4시께 빠른 유속과 높은 파도로 인해 민간군 합동구조팀은 세월호 선체 안팎의 수색을 잠정 중단한데 이어 밤 9시께 잠수사 전원이 철수했다.

침몰한 세월호 인근에 계류하며 잠수사들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던 2척의 바지

선 가운데 1척도 철수했다. 철수한 바지선은 배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수(平衡水·밸라스트워터) 기능이 없어 피항했으며, 사고해역에는 필수 운용 인력 20여명이 타고 있는 언더 소속 바지선 1척만이 계류중이다.

이와 함께 사고해역 주변 시신 유실 방지 작업을 벌이던 어선과 군·경의 합정대 부분도 수색을 중단한 상황이며, 항공기 수색도 기상 악화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국은 수중·해상·상공에서의 수색작업은 중단됐지만 육상에서는 진도와 완도, 해남 지역 해안을 중심으로 군·경·소방대원 등 1000명을 동원해 도보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다림 계속=전날 밤 철수한 잠수사 등 구조팀 관계자로부터 수색 중단 사실을 전해들은 데 이어 “오늘도 (수색작업이) 어렵다”는 브리핑을 들은 실종자 가족들은 맥이 풀린 모습이었다.

가족들은 비 바람이 몰아치는 팽목항 방파제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종일 눈물을 쏟았다. 가족들 일부는 침몰한 배 안에 갇힌 자식을 차가운

바닷속에 내버려두고 피항한 어선과 수색 함정들을 바라보며 무심한 하늘만 원망했다.

팽목항에서 만난 한 실종자 가족은 “자식 잃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하늘(날씨)마저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어서 빨리 날씨가 좋아져 한시라도 빨리 수색 작업이 재개됐으면...”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현재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는 29명으로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이 가장 먼저 운구 되는 팽목항과 진도 실내 체육관에 머물며 돌아오지 않는 자식(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구명장비 ‘양호’ 조작 함수부 “안전점검 허위 작성됐다” 유병언 형·장남·전양자씨도 조사

세월호 구명장비가 제대로 된 안전점검도 없었으나 ‘양호’한 것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장비인 구명벌(구명뗏목)과 슈트(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의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안전 점검 보고서도 허위로 작성됐다고 11일 밝혔다.

구명벌 점검을 대행하는 업체들의 경우 수평 상태에서만 구명벌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나마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수사본부는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로 안전 점검을 맡은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37)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2월 세월호에 설치된 구명벌과 슈트의 안전 점검 보고서 17개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리고 한국선급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사고 당시 구명벌 44개 가운데 멸치진 것은 1개뿐이었다.

수사본부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와 물류팀 부장 남모(5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아울러 선장 이준석(68)씨와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도 함께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적 등을 무시하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한식(72)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들도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지킴 특별수사팀도 12일 오전 10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군(44)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한편,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 유 전 회장의 측근이자 계열사 은지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채규경(68) 전 전북 행정부지사, 국제영성 대표인 탈렌트 전양자(여·72·본명 김경숙)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종행기자 golee@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외국인 전문가 진도에

미국 9·11테러 등 지구촌 재난 현장에서 활동해왔던 이스라엘의 심리 치료 전문 단체인 이스라엘이드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해 11일 진도를 찾았다.

이스라엘이드의 요탐 폴라이저 아시아 지역장 등 이스라엘이드 소속 심리치료 전문가 3명은 “현재 교대 근무로 이뤄지고 있는 상담 시스템으로는 희생자 가족 등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국내 의료진 등에게 조언했다.

폴라이저 국장은 특히 실종자 가족과 민간잠수사,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한 트라우마 치료가 교대 근무로 매번 바뀌는 정신과의사와 심리치료사, 상담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스라엘이드 의료진은 치료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날 광주에서 설명회를 열고 TOT(Training Of Trainers)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가족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심리치료 가인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진도=김형호기자 khh@



유류품 해안 수색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26일째인 11일 오전진도군 지산면 세방낙조 전망대 인근 해안에서 육군 31사단 장병들이 조류에 흘러 온 세월호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축구화·킥라면·초콜릿...방파제에 쌓여가는 눈물의 마지막 선물

“아들아! 엄마·아버가 해줄게 이것 밖에 없구나. 천국에서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기상 악화로 인한 수색작업 중단 이틀째를 맞은 11일 진도군 팽목항에는 돌아오지 않는 자식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 곳곳에 쌓이기 시작했다.

방파제 끝자락 난간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25일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던 한 실종자 가족이 바다로 길게 뻗은 방파제 끝 난간에 전날 놓아 둔 새 축구화였다.

실종된 아들에게 주는 부모의 마지막 선물. 축구화 구석 구석에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함께 ‘이제 더이상 차가운 바닷가에 혼자 있지 말고 부모 곁으로 돌아오라’는 절규가 그대로 담겨있었다. “사랑한다. 내 아들”, “아들, 천국에서는 잘 살아”, “사랑하는 내 아들, 너를 기다리는 모든이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렴. 사랑한다”

이 신발은 바람이 비교적 잠잠했던 오전까지만 해도 폭 50cm 가량의 난간에 놓여있다가 비바람이 거세진 오후에는 난간 아래 방파제 한 구석으로 옮겨져 있었다. 방파제 끝자락 한 구석에는 또 자식이 평소 좋아하던 킥라면도 놓여 있었다. “○○야 제발 돌아와! ○○야, 보고싶어, 미안해”라고 적힌 쪽지가 붙여진 킥라면을 본 다른 실종자 가족과 방문객들은 바다를 보며 숨죽여 울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일 팽목항 갯바위에서도 자식의 귀환을 바라는 부모가 놓은 신발이 발견됐다. 이 신발에 적힌 “막내야, 친구가 예쁜 신발 사왔어...보고싶어”라는 글귀에는 자식의 귀환을 바라는 예타는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났다. 날씨 탓에 수색 작업은 중단됐지만, 자식을 차가운 바닷속에 혼자 남겨 둔 부모가 머물고 있는 팽목항의 기다림은 멈추지 않고 더욱 간절해지고 있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KBS 김환영사장 유족에 사과 부적절 발언 보도국장사의 의

KBS 김환영 사장이 청와대 근처에서 연 좌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사과했다. 김 사장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중인 유가족들을 찾아가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세월호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보도국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깊은 상처드려, 책임이 있는 사장으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김시곤 보도국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종행기자golee@

“왜 경적 울려” 택시 막아선 취객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고 헤드 라이트를 비추었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개인택시를 막아선 40대 취객이 경찰서 행.

○--1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정모(45)씨는 이날 새벽 5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M아파트 앞길에서 승객을 태우고 가던 박모(58)씨의 개인택시를 막아선 뒤 “지나가려면 내 가랑이 사이로 가라”며 20분간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정씨는 자신이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본 박씨가 경적을 울리며 헤드 라이트를 비추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내가 살인범”이라며 횡설수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피스텔 "매매"

주인직매 H. 010-3605-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13층, 53P(실평33P) 창가 코너, 전망좋은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적합(주거가능)
매매가 1억 5500만원(시세/분양가 2억)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경매투자

- ▶경매 특수비법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입찰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개인지도, 3개월 완성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